

한반도 태풍 피해의 특성과 미래전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허창희

태풍은 단일 기상현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현상이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예보기관들이 협력하여 태풍활동을 예측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풍 예보 시스템은 주로 태풍의 특성만을 예측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태풍의 특성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실제 태풍의 위험성을 경고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방재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영향예보를 통해 태풍 피해의 심각성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의 태풍 영향예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 태풍 영향예보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면,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인적, 경제적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기상 기술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인 태풍 영향 예보의 기반을 언급하고자 한다.